



금속인천 14-8호

함께하는 인천지부 소식

**소통과 단결로
다시 세우는 인천지부!**

■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발행인: 김현동 ■ 발행일: 2026년 9월 10일

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 민주노총, 전국 노동청 앞 농성 돌입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 끝에 노조법 2조를 개정시켜 원청과의 교섭 문이 열렸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원청과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같이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교섭요구를 해도 원청이 안나오면 그만이다.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청교섭을 요구한 1,200여 개의 노조 중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법령에도 없는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시행령,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의 노동청 앞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인천본부 역시 지난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동 인천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노동부 시행령을 규탄하는 한편,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철회도 요구했다.

이번 농성은 9월 18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인천지부 역시 지회 임원 및 간부들과 함께 농성에 결함하며 제대로 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힘을 보탬 예정이다.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법률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한국지엠은 십수 년 넘게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다. 열악한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긴 싸움을 이어왔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불법이라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지엠 사측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비열한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손배의 벽에 부딪혀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비용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당부드린다.



**광천 재래김, 파래김 (선택)
2만원(1박스)**

배 송	2개 이상 택배비 무료(1개는 3천원)
문 의	김태훈지회장 010-5517-4337
입 금	국민 816902-04-099841 (정연준)

온라인 주문

gmbpbi.kr
온라인 주문이
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9/5일 민주노총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하반기투쟁선포대회를 열고, 노동자가 소외되지않는 정의로운 AI전환과 사회공공성 강화, 메가프로젝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I를 비롯한 산업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 할 뿐 기후위기와 노동권을 위한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반도체와 AI를 핑계로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1,500조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묻지마식 인프라 투자의 거품이 꺼지면, 리스크는 온전히 국민과 지역사회에게 막대한 손해와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사회화'가 벌어지게 된다. 전국을 뒤덮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을 급격히 늘려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생태적 수용한계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빌미로 자행되는 '노동권 파괴'이다. 메가특구법 초안에 따르면 메가특구 선정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금융, 세제, 인프라 혜택과 함께 노동유연화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종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무제한 노동시간제를 도입하여 살인적인 과로를 합법화하려 한다. 게다가 기간제 사용을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하여 특구 전체를 '비정규직 확산 단지'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산재와 과로사 기준을 뛰어넘는 '살인 노동'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노동 유치 경쟁까지 촉발시켜 대한민국 전체 노동기준을 크게 하락시키게 된다.

정부는 묻지마식 인프라 선투자로 '위험의 사회화'를 촉발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천지부 철원역사기행 후기

동광기연지회 이한수 조직부장

통일위원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2026년, 제주4.3, 광주5.18, 인천통일선봉대, 8.15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인천지부 철원역사기행에 참여했습니다. 8월 16일 10시 지부와 4개 지회 9명의 조합원이 철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철원역사문화공원과 노동당사를 둘러본 후 그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예전에 왔을때는 노동당사만 있었는데 문화공원을 만들어 역사적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 놓은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고석정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니 굵이치는 물줄기와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는 커다란 암석과 정자가 보였습니다. 압도적인 경치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은 한탄강의 유명한 주상절리길을 걸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의 바위들과 절벽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같은 물줄기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철원지역을 둘러보고 미처 몰랐던 자연의 위대함과 우리 역사의 아픔을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회 동지들과 함께 한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와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고 10월항쟁 80주년 "대구자주평화순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투쟁!!!

2026기후정의행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일시 2026.09.19(토) 오후 3시

장소 서울시청-송레문



당일 12시부터 사전행사 및 각종 부스 참여마당이 진행됩니다.

